

추석 명절, 우리 집 안전주의보: 음식 준비부터 식사까지!



베임 사고: 평소 대비

1.9배

추석 기간 하루 평균 42.3건 발생, 요리·설거지·청소 중 부상 집중, 50대 이상 비율 높음



화상 사고: 평소 대비

2.2배

추석 기간 화상 하루 평균 8.9건 발생, 77.4%가 주방에서 발생



기도폐쇄: 60세 이상 고령자

85.7%

추석기간 대부분 음식 섭취 중 발생(85.7%), 내원 환자 57.1% 입원

질병관리청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분석 (2021~2025년)

사고를 막는 '안전 명절' 예방수칙

베임 예방: 세척 전 전원 차단!



믹서기 날을 직접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고, 깨진 유리나 통조림 캔의 날카로운 단면을 개봉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.

화상 예방: 뚜껑은 천천히, 얼굴은 멀리!



압력밥솥이나 냄비를 열 때 얼굴을 멀리하고, 기름을 사용하는 조리 시 미끄러짐에 주의하며 어린이의 접근을 제한해야 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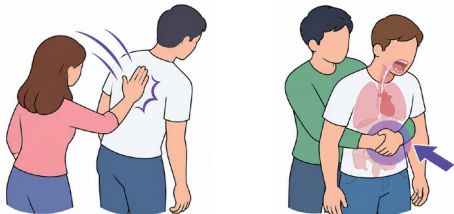
기도폐쇄 예방: 음식을 작게, 천천히!



떡이나 고기 등 질긴 음식은 특히 주의하고, 영유아와 고령자는 보호자의 관찰 하에 식사해야 합니다.

위급 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

성인 및 1세 이상 소아 대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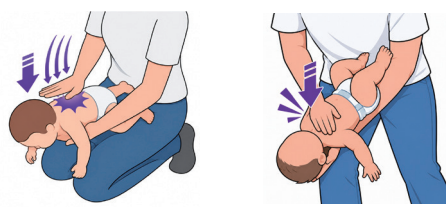


등 두드리기 5회

복부 밀어내기
(하임리히법) 5회

이물이 나올때까지 반복하고, 환자가 의식이 없어진다면 즉시 심폐소생술 시행

1세 미만 영아 대응



등 두드리기 5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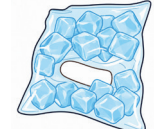
가슴 밀어내기 5회

화상 처치



- ▶ 발생 직후 장신구는 제거하고, 흐르는 찬물을 이용하여 15분 이상 화상 부위를 식혀준다.
- ▶ 화상 부위를 식히기 위해 얼음을 직접 대지 말고, 일부러 수포를 터트리지 않는다.
- ▶ 처방이나 지시 없이 연고나 로션, 치약 등을 바르지 않는다.
- ▶ 화상의 깊이나 범위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다.

베임 처치



- ▶ 1~2분간의 압박에도 출혈이 멈추지 않으면 5분 동안 더 압박한 후 심각한 출혈의 경우에는 119에 신고한다.
- ▶ 절단된 상처 면은 무균거즈나 깨끗한 천으로 외부출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싼다.
- ▶ 절단된 신체 일부는 젖은 무균거즈나 깨끗한 천에 잘 싸서 비닐봉투에 넣고 이 비닐봉투를 얼음주머니에 다시 넣어 차갑게 유지하여 보관하고 이동한다.